

3)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 사건을 마술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는다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다 보면 일종의 심리적인 힐링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심리적인 자기 암시로 인한 일시적인 치유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힐링도, 갑자기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듯이, 때에 따라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로는 더더욱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4) 가난해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거꾸로 부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콘서트에도 가고 호텔 뷔페도 가니까 훨씬 고품격으로 살기는 하겠지요.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유산도 적당하게 물려줄 수 있겠고요. 요즘 젊은 이들은 ‘아이 돌보는 삶’과 ‘아이돌 보는 삶’을 구분하더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름 없는 촌부로 살아도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온통 그분의 은총으로 가득하기에 소소한 일상에서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나 부자이거나 삶의 본질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누리는 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돈이 없을 때, 외로울 때,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껍데기는 가버릴 때’ 그 은총의 순간이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5) 제가 지금 도사 연하면서 가난을 예찬하거나 복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같은 삶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을 놓친 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면서 자기에게 매몰되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합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해방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로고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하나님이 함께하심)입니다. 이 말은 죽음까지 무효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곧 부활 경험입니다. 죽음의 무효화에 근거해서 바울은 18절과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서슴없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4년 3월10일
사순절 넷째 주일
세계 교회력 「나」해 15주



월간지 <기독교 사상> 2024년 3월호 표지에 실린 민경아 판화가의 <나들: Mes>(90×120cm_Linocut_2009)이라는 제목의 판화 그림이다. 그림 설명은 아래와 같다.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십자가와 우리나라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재구성하여 기독교 문화와 한국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였다.” 민 판화가는 미국 보스턴에서 판화를 전공하고 홍익대학교에서 미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순절에 음미해볼 만한 판화 작품이다.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예배 후 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라는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찬송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희망과 하나의 세례와 하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은/ 하나님의 참되고 자유로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명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 없는 사물에 이르기까지/ 만물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존귀를 드러내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 지금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의 절기인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둠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4장 (영광 누리소서) 이은영 곡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 * 예배 후에 설교를 주제로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 오늘 회장은 조르쥬 루오의 '예루살렘'입니다.
사순절 4주 "너희는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사야66:10)
- * 지난주일(3월 3일) 헌금: 880,000원
- 주일헌금 230,000원 통장헌금 65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국민은행 659002-04-033967 양혜선

* 2024년 3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
3월17일	박재진 목사	최선아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김희란 <시청각실>
3월24일	김동호 목사	윤동희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윤혜정 <시청각실>

지난주일(3월3일) 설교 발췌

제목: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 (고전 1:18-25)

1)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가장 간단히 말해서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치를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의술과 법도 세상의 이치입니다. 의술과 법 전문가가 되면 그 사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고 기득권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22대 총선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은 모두 지혜에서 일가견이 있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며, 자기들 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혜 있는 사람들끼리 충돌합니다. 법과 법이 충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성을 폐기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2)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σοφία τοῦ Θεοῦ)는 세상의 지혜와 차원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역설적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전도'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κηρύγματος입니다. 복음에 관한 설교나 선포를 가리킵니다. 루터 성경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어리석은 설교'라고 번역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볼 때 어리석다는 뜻이지 실제로 설교가 어리석다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초자연적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삶의 지혜를 찾으니까(고전 1:22)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찬송(주기도) ... 다 함께 (* 악보 별지 참조)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지십시오. 우리는 죄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상에서 현실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죄의 고백 ... 다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흩어졌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는데도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했고, 정의에 게을렀으며, 주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비의 기도 ... 다 함께

목사: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시 145:9) 자비를 구합니다.

회중: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찬송가를 부른다.)

간절하게 이강민

주 - 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소 서 그리스도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소 서 주 - - - 여 자 - 비 - 를 베 풀 어 주소 서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룩 하 - 시 다 거룩 하 - 시 다 거룩 하 시 도 - 다
만 군 의 주 하 - 나 님 하 늘 과 땅 - 에 가 - 득 한 그 영 광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주 의 이름 으 로 오 시 는 이 - 여
찬 양 받 으 소 - 서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Why Should He Love Me So ? Robert Hartless

R.H.

1. 사 랑 이 구 주 를 죽 게 했 네 왜 날 사 랑 하 나?
 2. 그 손 과 발 날 위 해 찢 기 셧 네 왜 날 사 랑 하 나?
 3. 내 대 신 고 통 을 당 하 셧 네 왜 날 사 랑 하 나?
 Love sent my Sav-ior to die in my stead Why should He love me so?

결 손 히 십 자 가 지 시 었 네 왜 날 사 랑 하 나?
 고 난 을 당 하 여 구 원 했 네 왜 날 사 랑 하 나?
 죄 용 서 받 을 수 없 었 는 데 왜 날 사 랑 하 나?
 Meek-ly to Cal-va-ry's cross He was led, why should He love me so?

왜 날 사 랑 하 나? 왜 날 사 랑 하 나?
 Why should He love me so? Why should He love me so?

왜 주 님 갈 보 리 가 야 했 나 왜 날 사 랑 하 나?
 Why should my Sav-ior to Cal-va-ry go? Why should He love me so?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는 이와/ 그 말씀을 설교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말씀 민수기 21:4-9 ... 이유선 집사

성서교독 시편 107:1-3, 17-21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고마우신 주 하나님 어지시고 어지시다 인자하신 주의 사랑 영원무궁 하시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함께 노래하라 원수들의 함정에서 건져내심 받았도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기도 올리어라 감사찬송 드리어라
 -미련하고 완악하여 주님말씀 거역하다 죄가운데 빠져들어 고통받는 인생들아
 음식맛을 잃어버려 죽도물도 못삼키고 죽음문턱 다다라서 죽을지경 되었기에
 -주님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통곡하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네
 주님말씀 한마디로 상한마음 고치시고 파멸당할 수렁에서 우리끌어 내셨다네
 -감사하신 주 하나님 베풀어준 크신사랑 구원하신 크신능력 우리모두 찬양하자

둘째 말씀 에베소서 2:1-10 ... 이유선 집사

*셋째 말씀 요한복음 3:14-21 ... 이유선 집사

*응답 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죽음에서 살림으로! ... 김동호 목사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1, 2절 ... 다 함께